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자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쿠파어 가나 대통령 각하,

야이 베냉 대통령 각하,

키크웨테 탄자니아 대통령 각하,

그리고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한·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해 주신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진지하고 열띤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 아프리카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도별 실천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포럼이 정례화 되어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관계발전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의료·보건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IT 기술 공유, 통상·투자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역량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스스로의 발전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의 '새천년개발 목표'를 이행하는 데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가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와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풍부한 자원과 개발 열기를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긴밀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린우호와 호혜평등의 토대 위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한때 식민 지배를 경험했고 냉전 시대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런 자원도 자본도 없이 오늘의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발전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손잡고 보다 번영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 반기문 외교 장관을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아프리카 포럼의 성공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